

전남교육청, 2030년 구현될 '미래교실' 사전 공개

‘글로벌교육박람회’ 핵심 콘텐츠
여수지원청·목포창의융합원 두곳
전자칠판·학습지원 로봇 등 다양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30년 구현될 미래교실의 모습을 선보인다.

전남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개막 20일을 앞두고 이번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 미래교실’을 전남도여수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목포창의융합교육원 두 곳에 사전 구축해 공개했다.

전남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교실’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거워 만큼, 지난달 30일



전남교육청이 목포창의융합교육원에 구축한 미래교실 모습.

전남교육청 제공

여수 미래교실을 공개한 데 이어 9일 목포에도 문을 열었다.

이번에 구축된 사전 미래교실은 29일

박람회장에서 선보일 총 6개 ‘글로벌 미래교실’의 방향성을 함축한 모델이다. 사전 미래교실 전면 중앙에는 대형 전자칠판이 들어

판이 들어서 수업 자료를 볼 수 있고, 로봇이 교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습 지원을 돕는다. 교실 공간은 학생들 간 적극적인 토론·소통·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듈형으로 배치했으며 1인 1미디어 활용 환경을 조성했다. 인류가 오래 상상해 온 미래학교의 모습이 실제 눈앞에 구현된 셈이다.

무엇보다 개별학습맞춤 지원이 가능한 게 큰 특징이다. 일반적인 교실 환경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춘 수업 진행이 어렵지만, 미래교실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학습분석을 통한 수준별 학습활동이 가능하다.

이번에 구축된 미래교실은 스케줄에 따라 학교급별 2030 미래수업이 진행되며, 사전 협의·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박람회가 막을 내린 뒤에도 미래교실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장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보완 과정을 거쳐 여수·목포의 미래교실을 ‘글로벌 교실’의 모델로 안착·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29일부터 6월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는 전남 교사들 137명이 고민한 미래수업 모델을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일 간 총 59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 주제는 세계시민(다문화), 디지털, 지역 연계, 생태전환 등 네 가지다. 박람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kglocaed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인 기자

전남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남도문화탐방 호응

임직원 초청 지역 명소 둘러봐

전남도는 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80명을 초청해 남도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했다.

남도문화탐방은 ‘전남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참여자의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남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 전남의 숨은 명소를 알리는 한편, 가족 단위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지난해부터 재개됐으며, 지금까지 4100여 명의 임직원, 가족이 참여했다.

이번 탐방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와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이뤄졌다. 세계 최초로 의릉과 공룡, 새 발자국 지층 등 진품 화석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공공전문박물관인 해남 우항리 공공박물관과 자연사 유적지 일대 탐방으로 시작했다.

이어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에서 국보 제308호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삼층석탑, 대웅보전, 청운당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청림 문화 캠페인도 진행됐다.

행사는 영암 예담은규방문화원에서 천연재료를 바탕으로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의 빛깔을 담아내는 천연염색 체험과 함께 도정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설문 조사를 통해 희망 탐방 장소와 프로그램을 발굴해 내년 남도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12일까지 5·18사적지 환경정비

광주시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옛 광주적십자병원, 505보안부대 옛터 등 5·18사적지와 표지석 등 관련 시설물을 오는 12일까지 정비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사적지 정비를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시와 동·서·남·북구 등 4개 구청이 교차점검을 펼쳐 5·18사적지 시설물의 훼손 유무와 환경정비 범위를 검토했다.

5·18사적지 제1호인 ‘전남대 정문’을 비롯한 총 29곳의 5·18사적지 표지석

(32개)과 상징조형물(17개)에 대한 세척·보수를 실시하고, 옛 광주적십자병원, 국군광주병원 등 보존사적지 4곳에서 쓰레기·잡풀·잡목 제거 등 환경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옛 광주적십자병원, 국군광주병원 등 5·18사적지 건축물의 외벽도장 손상, 창문 파손 등 경관 개선이 시급한 만큼 보수계획을 세워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시립수목원서 착한소비 ‘푸룻마켓’ 운영

사회적경제 친환경 제품과 착한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하이, 푸룻마켓’이 11일 광주시립수목원에서 열린다.

9일 광주시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광주공유센터·광주시립수목원이 함께 하는 ‘하이, 푸룻마켓 in 광주시립수목원’ 행사를 11일 시립수목원 방문자센터 일원(광주 남구 도동길142)에서 연다.

이 행사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이에스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일에는 △힐링 테라리움 체험 △친

환경 샴푸바 만들기 △감정오일 테라피 △이에스지(ESG) 캔버스그림그리기 △친환경 패브릭 소품 △무등산 수박탄산수 △유기농 먹거리 △광주공유센터 울망줄 망장터 등 총 50여 개의 체험·판매·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또 비블 공연, 풍선아트 공연, 가족 참여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사전등록 및 무료 체험 이벤트, 가족 즉석 사진 무료 촬영, 사회적경제 쇼핑몰 ‘가치사세(www.gachisase.kr)’의 회원 가입 프로모션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성장팀(062-531-6667-8)으로 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광주대 기업가정신센터 개소

김동진 광주대 총장과 백지환 기업가정신센터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김경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9일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 6층에서 기업가정신센터 개소식을 갖고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기업가정신센터는 재학생들에게 프로젝트 기반 현장 실습형 교육 기회를 제공 및 성공적 창업모델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나건호 기자

동아리박람회·월드컵... 광주 청소년행사 ‘풍성’

시, ‘청소년의 달’ 행사 마련 공연·먹거리 등 프로그램 다채 ‘오월 주먹밥’ 등 5·18 행사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광주지역 청소년시설에서 동아리박람회, 적정기술체험, 청소년월드컵 등 다양한 체험 및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또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5·18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오월정신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청소년수련관은 18일 ‘청소년들이 이어가는 5·18’을 통해 오월주먹밥, 태극기 매듭팔찌 만들기 등 80년 5월 당시 나눔과 연대의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11일 ‘오월 담은 주먹밥’ 행사를 열어 주먹밥을 통해 나

보다는 옆 사람을 먼저 돕고 챙기던 5·18 정신을 되새긴다. 광주시청소년수련원은 18일 ‘5·18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민주교육과 사회참여 캠페인을 벌인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도 열린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17일 낮 12시부터 일곡제1근린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일곡마을 청소년월드컵’을 연다.

광산구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11일 오후 1~4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요리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오감체험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북구청소년수련관도 11일 오후 수련관 앞에서 ‘북구청소년어울림마당’을 열고 동아리공연, 체험부스, 진로체험, 부대행

사 등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각화청소년문화의집은 25일 오후 체험부스, 놀이부스, 먹거리부스, 동아리 전시, 버스킹 공연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축제를 연다.

서구청청소년수련관은 25일 유스퀘어 광장을 무대로 오후 2~5시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구 청소년의 날 선포, 청소년시설 동아리 공연, 우수 청소년 포상 등을 한다.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마련한 ‘청소년동아리박람회’는 6월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일원에서 열린다. 청소년 동아리들의 노래, 케이팝(k-pop) 안무 등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키워온 재능을 마음껏 발산한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보성에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문체부 공모 선정 10억원 확보 생산·전시·판매·체험 등 활성화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4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사업은 한복 생

산,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간을 조성해 한복문화 활성화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한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차년도인 올해는 시설을 구축하고 공간을 조성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전남도는 보성

(Green)한복 창작소’로 탈바꿈해 운영할 계획이다.

‘가치그린(Green)한복창작소’에서는 한복 계승교육, 조종고 한복문화교육, 전통한복 기획 전시, 한복 재활용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오는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한복문화주간에는 한복 패션쇼, 전통혼례식을 선보이고 천연염색 규방공예, 전통자수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한다.

곽지혜 기자